

일본, ETBE 양산 플랜트 건설

Nippon Oil, Negishi 정유공장 생산능력 10만kl ... 20억엔 투자

Nippon Oil이 2009년 말부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 가솔린의 원료를 일본에서 양산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바이오 가솔린 원료를 양산하는 것은 처음으로 Nippon Oil은 Yokohama 소재 Negishi 정유공장에 20억엔 가량을 투자해 ETE(Ethanol Tert-utyl Ether) 10만kl 플랜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Nippon Oil는 일본의 바이오 에탄올 주산지인 홋카이도(Hokkaido), 오사카(Osaka), 오키나와(Okinawa) 등지에서 바이오 에탄올 등의 원료를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바이오 가솔린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가솔린은 식물 등을 발효시켜 만든 바이오 에탄올에 석유 가스를 합성시킨 ETBE를 휘발유에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ETBE는 석유제품 생산기업들이 브라질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Nippon Oil은 ETBE를 일본에서 생산함으로써 물류비용 감소 및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28>